



NC 선수들이 1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KBO리그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의 경기에서 승리 후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kt 선수들이 지난달 21일 경기도 수원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kt wiz의 경기에서 이긴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디어 시즌 1호 골 한숨 돌린 양민혁



‘영건’ 양민혁 (포츠머스)이 벼락같은 오른발 슈팅으로 마수질이 포를 터뜨렸다. 양민혁은 2일(한국 시간) 영국 포츠머스의 프래턴 파크에서 열린 왓퍼드와의 2025-2026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2부 리그) 8라운드 홈 경기에서 전반 5분 선제골을 터뜨렸다. 오른쪽 터치 라인에서 문전을 향해 던진 포츠머스의 스로인이 뒤쪽으로 흘러나왔고, 페널티 지역에 자리 잡고 있던 양민혁이 강력한 오른발 발리슛으로 반대쪽 골대 구석에 찔러 넣었다. 양민혁의 올 시즌 1호 골이자 첫 공격 포인트다.

그는 지난 시즌 퀸스파크 레인저스 소속으로 2골 1도움을 기록했다.



양민혁이 시즌 1호포를 터뜨리고 그라운드를 돌고 있다. 포츠머스 SNS 캡처

가을야구 ‘막차 티켓’... NC냐 kt냐

프로야구 제9구단인 NC 다이노스와 제10구단 kt wiz가 2025 KBO리그 가을 열차의 남은 한 자리를 두고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5위 NC는 3일 창원 NC 파크에서 SSG 랜더스와, 6위 kt는 같은 날 수원케이티위즈파크에서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최종전에 임한다. 공룡군단 NC와 마법사군단 kt는 승차 없이 승률에서 순위가 갈린다. NC는 2일 현재 70승 67패 6무 승률 0.51095, kt는 71승 68패 4무 승률 0.51079



SSG·한화와 최종전에서 결판 승차 없이 승률서 순위 갈릴듯 동률확률 희박... 5위 결정전 생략 포스트시즌 진출 가능성 NC가 커 오늘 SSG전 우천 취소 변수 주목

NC가 패하거나 무승부를 기록하길 바라야 한다. 승률 동률이 나올 경우의 수는 없다. 올해 5위 결정전은 펼쳐지지 않는다. 포스트시즌(PS) 진출 가능성은 NC가 커 보인다. NC의 상대인 SSG는 해당 경기에 전력을 기울일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SSG는 이미 3위를 확정했다. 현시점에서 선수들의 부상 방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동안 강행군을 펼쳤던 주전 투수들은 대거 휴식을 취하고 비주전급 투수들이 대거 출전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 타이틀 경쟁도 특기할 만한 것이 없다.

SSG 베테랑 볼펜 노경은은 이미 홈드(35개) 타이틀을 확정했고, 탈삼진 2위를 달리는 외국인 선발 투수 드루 앤더슨은 지난달 29일 롯데 자이언츠전에 등판한 뒤 지난 1일 엔트리 말소됐다. 게다가 2일 경기는 창원 원정에서 펼쳐진다. “경기장을 찾아주시는 홈 팬들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질 필요도 없다. 다만 변수가 있다. 3일 창원시엔 비 예보가 있다. 해당 경기가 밀린다면 kt-한화전 결과를 지켜본 뒤 SSG전을 치러야 한다. NC 선수들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

kt는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에서 정규시즌 최종전을 치러야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만약 한화가 1일 SSG전에서 승리했다면, 한화는 1위 등극 가능성을 남겨두게 돼 3일 kt전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한화는 SSG전 9회 말에 마무리 투수 김서현이 무너지면서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했다. 우승 가능성이 소멸한 한화는 3일 kt전의 의미가 사라졌다. kt는 한화의 전의를 꺾은 SSG가 NC의 기세까지 무너뜨려 주길 간절히 바란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타올 예술... SSG 괴물 신인이 나타났다

프로야구 SSG 랜더스 신인 이올예(18)가 2025시즌 정규시즌 우승팀을 사실상 결정지으면서 자신의 이름 석 자를 야구 팬들에게 확실히 알렸다. 이올예는 1일 인천 SSG랜더스 필드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 경기에서 팀이 4-5로 뒤진 9회 말 2사 1루에서 한화 마

이올예, 올 안타 2개가 다 홈런... 한화전서 역전 끝내기 존재감

우리 김서현을 상대로 극적인 역전 끝내기 2점 홈런을 때려냈다. 만일 이 경기에서 한화가 이겼더라면 한화는 3일 kt wiz와 경기를 잡을 경우 LG 트윈스와 공동 1위로 시즌을 마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한화는 이날 9회 말 2사 주자 없는 유리한 고지에 올랐으나 김서현이 류효승에게 안타, 현원희에게 2점 홈런을 맞고

승팀을 LG로 정해준 SSG 이올예는 지난해 신인 드래프트 전체 8순위로 SSG 유니폼을 입은 포수다. 강릉고 출신인 그는 2006년 11월생으로 아직 만 19세도 되지 않았다. 키 183cm, 몸무게 90kg인 이올예는 올해 1군에서 8타수 2안타를 기록 중인데 그 2안타가 모두 홈런일 정도로 한 방이 있는 선수다. 지난달 20일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3점 홈런으로 프로 데뷔 첫 손맛을 봤고, 이날 투런포로 SSG뿐 아니라 LG 팬들까지 환호하게 했다.

올 시즌 포츠머스에서 임대 생활을 시작한 양민혁은 1라운드에서 23분을 뒀 뒤 2-6라운드에서 내리 결정하며 입지를 잃는 듯했다. 7라운드 임스위치전에서 선발로 복귀해 74분을 뒀 양민혁은 이날도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장해 후반 18분 하비 블레어와 교체될 때까지 약 63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볐다. 축구 통계 전문 풋몹은 양민혁에게 팀 내 가장 높은 평점 7.6을 줬다. 양민혁의 선제골에 힘입어 1-0으로 앞서던 포츠머스는 후반 시작 직후 임란 루자에게 동점골, 후반 11분 로코바타에게 역전골을 내줬으나 후반 34분 아드리안 세게지치의 득점으로 2-2 무승부를 거뒀다.

25년 경력의 일간지 교열기자가 말하는 글씨 고치고 다듬는 기법 공유

군더더기 없고 쉽게 읽히는 간결한 문장에 에세이 읽을 때와 비슷한 속도와 난이도 애매한 ‘어문법’ 익히고 싶은 분에게 추천

다	쓴	글	도
	다	시	보
		자	

단순히 말을 문자로 옮기면 글이 된다.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듯이 글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말에 ‘듣는 이(聽者)’가 있듯이 글에도 ‘읽는 이(讀者)’가 있다. 혼잣말을 듣는 이는 자신이며 읽기를 읽는 이 역시 자신이다. 실언(失言)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면 실문(失文) 역시 부끄러워해야 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면 쓰는 글이 좋아야 읽는 이의 평도 좋을 것이다.

-서문에서